

CEO Report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2013. 7

전용식 · 윤성훈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요 약

유럽의 대표적인 복합금융그룹인 Royal Bank of Scotland(이하 RBS), ING, Dexia, KBC, HSBC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보험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축소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RBS, ING, Dexia, KBC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단기자금 중심의 자금 조달로 위기 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HSBC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자발적 사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시아-유럽지역의 보험사업 매각과 보험사업과 자산관리 사업의 연계 등 사업범위 조정을 추진 중임.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원인은 ① 그룹의 신속한 회생(RBS), ② 보험사업 부실 정도(ING, Dexia, KBC), ③ 은행·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 상승(ING, HSBC) 등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은행·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임.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은 고객에 대한 윈스탑 서비스 제공과 소매 금융상품 판매 시너지 창출 등 은행·보험업 겸영의 장점을 희석시킬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복합금융기관들이 보험사업을 매각 혹은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은행·보험업 겸영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겸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서 업권 분리와 동일 업종 내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국내 보험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산업 감독규제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쟁구도의 변화,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자산운용전략 변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수요-공급 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함. 또한 2013년 말부터 바젤 III가 도입되고 2015년 유동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업권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CONTENTS

I. 검토 배경	1
----------------	---

II.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사례	2
------------------------------	---

1. 공적자금 지원과 보험사업 매각	2
2. HSBC의 보험사업 매각	3

III. 보험사업 매각 원인	5
-----------------------	---

1. 그룹 회생, 보험사업 부실과 위험전이 차단	5
2. 은행·보험업 겸영 비용 상승	6

IV. 결론 및 시사점	11
--------------------	----

〈부록 I〉	14
--------------	----

〈부록 II〉	18
---------------	----



I. 검토 배경

- 유럽의 대표적인 복합금융그룹인 Royal Bank of Scotland(이하 RBS), ING, Dexia, KBC, HSBC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에서 철수하거나 보험사업을 축소하고 있음(부록 표 I-1) 참조).
- HSBC는 자발적으로 보험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지원 조건이 보험사업 축소임.
- 이에 따라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은행·보험업 겸영이 축소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사례를 분석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Ⅱ.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사례

1. 공적자금 지원과 보험사업 매각

■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금융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남.

- ROA나 ROE로 평가한 금융산업 수익성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상업은행과 보험업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들어서는 상업은행보다 보험업 수익성¹⁾이 더 악화됨(<부록 표 I-2> 참조).

■ RBS, ING, Dexia, KBC 등이 공적자금²⁾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단기자금 중심의 자금조달로 인해 위기 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투자부문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 RBS의 경우 ABN ARMO 인수 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대출과 거액대출 등 고위험 은행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유동성 문제가 야기됨.
 - 보험사업이 부실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복합금융그룹임.

1) Morgan Stanley Capital Index에 포함된 상업은행, 보험회사의 평균 수익성.

2) 유럽에서 공적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부채상환보증(Debt Guarantee Scheme), 자본투입(Re-Capitalization), 부실자산지원(Support for Bad Asset Schemes),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 공적자금은 자본투입을 의미함.

- ING는 보험업과 은행의 투자손실 확대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인데, 보험업 손실이 5억 7,000만 유로로 은행 손실 2억 유로를 크게 초과하였음.
- Dexia는 미국 지방정부채권 발행과 관련한 신용보강사업(Bond Insurance)이 부실화되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
- KBC 부실 원인은 투자은행의 CDO/ABS 투자손실, 상업은행의 PIIGs 대출손실 등임.

2. HSBC의 보험사업 매각³⁾

- HSBC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52건의 사업 매각⁴⁾을 발표·추진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영국, 아일랜드 및 아시아 지역 보험사업 매각도 진행하고 있음(부록 표 I-3) 참조).
 - HSBC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손해보험사업을 각각 Syndicate Holdings와 Catalina Holdings에 매각하였고, 프랑스의 손해보험사업 역시 매각을 계획하고 있음.
 - HSBC는 2012년 3월 아시아와 남미지역의 손해보험 사업을 프랑스의 AXA, 호주의 QBE에 현금(9억 1,400만 달러)으로 매각하였음.

3) HSBC(2013. 5), "Investors Update Presentation".

4) ① 전략의 연계성, ② 지역의 경제발전, ③ 사업의 수익성, ④ 효율성, ⑤ 유동성, ⑥ global risk standards 등의 기준에 따라 '투자', '개선', '현 상태 유지', '철수' 등으로 결정되었음. 52개 사업 철수가 완료될 경우 950억 달러의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2년 그룹 위험가중자산 1조 1,290억 달러의 8% 수준임.

- 중국, 홍콩, 대만 및 베트남에서는 생명보험사업을 매각하였음.

■ 그런데 HSBC가 AXA와 QBE에 매각한 보험사업의 경우 매각 가격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서 보험상품이 HSBC를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임.

- AXA는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의 HSBC 손해보험 사업을 4억 9,400만 달러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2011년 말 기준 순자산가치 4,800만 달러의 10배에 이르는 수준임.
 - AXA는 이들 지역에서 HSBC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손해보험 상품을 공급할 예정임.
- QBE도 순자산가치 1억 8,900만 달러의 HSBC의 아르헨티나 손해보험 사업을 4억 2,000만 달러에 매수하였음.
 - QBE도 AXA와 유사하게 손해보험 상품을 아르헨티나에서 판매할 때 HSBC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보험사업 매각 이외에도 HSBC의 보험사업 전략 변화가 관측되고 있음.

- HSBC는 보험사업을 소매은행/자산관리 사업부에 배치하여 자산관리,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과 함께 수수료 중심의 사업으로 범위를 규정하였음.

Ⅲ. 보험사업 매각 원인

1. 그룹 회생, 보험사업 부실과 위험전이 차단

■ 이들 중 RBS의 경우 보험사업과 무관하게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신속한 회생을 목적으로 그룹내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보험사업을 매각함.

- RBS는 455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그룹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수익성이 가장 좋은 보험사업을 매각하였음.
 - 보험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ROE가 18.3%에 달하였으며, RBS 수익(income)의 21.5%를 차지하였음.⁵⁾⁶⁾
 - RBS는 2012년 자회사인 Direct Line Group의 지분 34.7%를 공개 매각을 통해 9억 1,100만 파운드를 조달하였음.

■ 보험사업 부실이 심했던 ING, Dexia, KBC의 경우 보험사업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 조정 이후 보험업 경영 여부가 달라짐.

- ING는 은행과 보험업 분리⁷⁾가 공적자금 지원 조건이었으며, 보험업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임.

5) RBS는 보험사업 이외에도 추가로 5개 사업을 매각했는데, 각각의 수익(Income) 비중은 Global Merchant Service 2.7%, RBS Sempra Commodity 3.7%, Asia Retail & Commercial 3.7%, Rainbow 4.6%임.

6) EC, State Aid No N422/2009 and N 621/2009, 2009.12.14.

7) 전용식·임준환(2012. 5. 29), 「ING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그룹내 보험업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⁸⁾ 보험사업 손실도 은행 손실을 초과하였고, 보험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핵심부채(Core Debt) 투자 및 은행업과 보험업 간의 거래관계⁹⁾로 인해 보험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 공적자금 지원 조건으로 EC와 네덜란드 정부는 ING의 은행과 보험업 분리, 이중레버리지 해소를 명시하였음.

- Dexia와 KBC의 경우 보험업 비중이 높지 않았으며, ING와 달리 보험사업 매각 이후에도 은행·보험업 겸영은 허용되었음.

- 이들은 보험사업 철수 또는 축소로 총자산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본비율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임(〈부록 표 I-4〉 참조).

2. 은행·보험업 겸영 비용 상승

- 은행·보험업 겸영 비용이 겸영에 따른 기대수익(편익)보다 큰 경우에는 매각(ING, HSBC)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겸영(Dexia, KBC)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¹⁰⁾

8) 2008년 보험사업 비중이 총자산의 23%에 달함.

9) ING의 경우 지주회사가 외부에서 부채를 조달(핵심부채)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이중레버리지와 자회사 간 거래가 전이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었는데, 2008년 말 ING 보험사업은 기타부채 171억 유로 중 68%인 117억 유로를 그룹 내 자회사로부터 차입하고 있었음. 전용식·임준환(2012, 5. 29), 「ING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10) RBS는 보험사업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함.

가. 편익: 효율적 판매채널과 자본효율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원스탑 서비스 제공, 자본의 효율적 이용, 소매금융상품 판매 시너지 창출 등의 장점이 강조되면서 유럽 등에서 은행·보험업 겸영이 확대되었음.

- 한편 미국의 경우 은행이 보험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음.

■ 첫째, 판매채널 측면에서 은행·보험업 겸영이 독립적인 생명보험회사보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불확실하나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은 실증적으로 분석되었음.¹¹⁾

■ 둘째, 또한 유럽 일부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은행·보험업 겸영으로 인한 규모·범위의 경제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¹²⁾

- Aviva와 Fortis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6년간 은행·보험업 겸영 마진이 4.16%(Fortis), 2.7%(Aviva)로 브로커 마진 1.82%(Fortis), 1.5%(Aviva)를 상회하였음.¹³⁾

■ 셋째, 은행·보험업 겸영으로 자본비용 절감이 가능하였음.

-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한 자본이나 부채를 은행과 보험업으로 이중으로 계상(double counting)하는 것이 가능하였음.¹⁴⁾

11) Fiordelisi and Ricci(2010), Efficiency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what are the efficiency gains from bancassurance?

12) Davis, Steven(2007), Bancassurance: The Lessons of Global Experience in Banking and Insurance Collaboration, VRL Knowledge.

13) 경영성과 비교는 주식시장 상황 등 경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은행·보험업 겸영의 효과를 분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제외함.

14) 모회사에서 조달한 자본을 자회사 지분으로 투자할 경우 Double Gearing, 모회사에서 조달한 부채를 자회사 지분으로 투자할 경우를 Double Leverage로 구분할 수 있음.

나. 비용(1): 주주가치 훼손과 리스크 전이 및 확산

- 그러나 이러한 은행·보험업 겸영의 장점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주가치 훼손, 통합의 어려움, 금융업권간 위험전이 등으로 인해 희석되기 시작함.
- 은행·보험업 겸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보험회사의 합병은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음.¹⁵⁾
 - 합병 이후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이유로는 인수비용이 과도하고 인수·합병 이후 통합(post merger integration)이 쉽지 않았기 때문임.
 - 통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은행과 보험회사 간 문화적 차이로 알려짐(〈부록 표 I-5〉 참조).
- 또한 은행·보험업 상호 주식 소유를 통한 은행과 보험업의 연계는 전이위험(contagion risk)¹⁶⁾을 확산시켜 은행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NG의 경우와 같이 이중레버리지와 자회사 간의 거래관계는 보험회사의 위험이 은행으로 전가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ING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조건으로 보험사업 매각과 분리를 명시했는데, 이는 은행과 보험업 간의 위험전이 차단이 목적이었음.

15) 맥킨지가 1990년부터 2001년간 미국과 유럽 보험회사들의 237건에 달하는 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1990년부터 2001년간 유럽에서 보험회사의 은행 인수 발표 이후 1년간 평균 주가 수익률은 보험업 평균 주가 수익률보다 3.0%p 낮았음. 반면 사업 다각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발표 이후 1년간 평균 주가 수익률이 보험업 평균 주가수익률보다 8.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16) 2008년 초 ING보험의 투자손실이 ING그룹으로 확대되었고, Dexia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사업 하던 FSA Insurance의 손실이 그룹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임.

- 은행·보험업 겸영은 IT버블 붕괴 시에도 위험전이를 통해 금융 안정성을 악화 시킨 사례가 있음.¹⁷⁾¹⁸⁾

다. 비용(2): 자본규제 강화(바젤 III와 솔벤시 II)¹⁹⁾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 III와 솔벤시 II 등을 통한 금융규제 강화는 은행·보험업 겸영의 비용을 높이고 있음.

■ 바젤 III 시행은 은행, 보험업, 투자은행업 등을 겸영하는 복합금융그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위해 도입된 공제항목 가운데 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호 보유지분 및 은행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포함되어 은행·보험업 겸영 비용을 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비연결(non-consolidated)은행, 보험회사 투자지분에 대한 자본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투자지분 공제와 상호주식보유 규제를 강화하였음.²⁰⁾
- 2010년 12월 바젤 III 계량영향평가 결과 바젤 III 적용 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5.7%로 바젤 II 보통주 자본비율 11.1%에

17) 유럽 은행의 보험회사 인수 18건 중에서 인수 보험회사를 다시 매각한 경우가 7건임.
Bank/Insurance Mergers outside Canada: The lessons for Public Policy, Department of Finances Canada, 2003.12.

18) Credit Suisse(은행)와 Winterthur(보험회사)의 사례는 2000년 초 주식시장 붕괴로 당시 주식에 상당한 자산을 운용했던 보험회사의 손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었던 경우와, 2001년 독일 최대 보험회사 Allianz는 Dresdner 은행을 인수하였으나, Dresdner 은행의 부실채권 확대와 투자은행사업의 손실로 Allianz의 생존이 위협을 받았던 경험이 있음.

19) 바젤 III와 솔벤시 II에 대한 내용은 <부록 II>를 참조 바람.

20) 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10% 이하 보유할 경우,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연결기준 투자지분가치(consolidated holdings valued)를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함. 자회사 보통주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연결기준 투자지분가치(consolidated holdings valued)를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함.

비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HSBC의 경우 보험 자회사로 인한 자본공제 규모는 133억 달러로 전체 공제규모 371억 달러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²¹⁾

■ 솔벤시 II가 시행될 경우, 유럽 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 규제가 보다 엄격해져 보험 회사의 자본비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의 상장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영향 평가 결과 2009년 솔벤시 I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98%이나 솔벤시 II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35%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²²⁾

■ 요구자본 증가보다 시장리스크 반영으로 인한 요구자본 변동성 확대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

- 주식·채권·대출시장의 변동성과 보험회사의 상품구조, 자산운용전략, 자산·부채관리 역량에 따라 보험회사간의 지급여력비율 격차가 커질 수 있음.

■ 그러나 위험분산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보험회사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음.

- 위험분산효과를 인정하여 위험헤지 역량과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게 자본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21) JP Morgan(2010).

22) Morgan Stanley and Oliver Wyman(2010), "Solvency II: Quantitative & Strategic Impact".

IV.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유럽의 은행·보험업 겸영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은 복합금융 그룹별로 다른데,

① 보험사업 가치가 복합금융그룹내에서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 ② 보험사업 부실이 컸으며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 ③ 보험사업 겸영의 자본비용 상승 때문임.

■ 은행·보험업 겸영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될 경우, 겸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서 업권 분리로 전환되고, 같은 업종내 인수합병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 복합금융그룹이 매각하고 있는 보험사업을 그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보험그룹이 인수하고 있음.
- 바젤 III가 시행될 경우, 은행·보험 겸영그룹의 보험사업 매각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보험회사의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판매채널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솔벤시 II 시행에 대비한 유럽 보험회사의 지역·사업다각화 필요성으로 복합금융그룹이 매각하려는 보험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이처럼 보험사업의 가치는 다른 금융업권에는 감소할 것이나 보험회사에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산업 감독규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 솔벤시 II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글로벌 보험산업 규제는 바젤 III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점영의 비용을 높이고, 자본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금융산업 규제 방향은 상당기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솔벤시 II와 더불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IAI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솔벤시 II의 기본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할 것임.
- 바젤 III와 솔벤시 II 등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전략 전환이 예상되며, 국내 보험회사들도 해외 자산투자전략 수립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젤 III의 유동성 규제와 솔벤시 II의 시장리스크 반영으로 은행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임.²³⁾

■ 당장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업권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23) 예를 들어 단기채권보다 장기채권에 대해서 신용위험이 요구하는 자본 양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단기채권을 더 선호할 수 있음. Morgan Stanley and Oliver Wyman(2010)에 따르면 솔벤시 II 시행 시, 솔벤시 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에 대한 기대수익은 주식 10%, 부동산 10%, 10년 만기 채권 9%, 5년 만기 채권 13%, 3년 만기 채권 15%로 추정되었음.

-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 체계의 겸업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²⁴⁾ 금융업권간 고객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임.
 - 유동성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이 국공채 투자 확대와 소매예금 유치 노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과 판매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은행의 국공채 투자가 확대될 경우, 보험회사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4)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은행 금융사업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바젤 III 영향평가(QIS 5) 결과에서도 국내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공제항목에 의한 보통주 자본감소 크기가 바젤 II 자본에 비해서 3.2%로 나타나 23개국 평균 -41.3%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바젤 III를 올해 12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나, 유동성비율 규제는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임.

부록 표 I-1 공적자금을 받은 유럽 복합금융그룹 보험사업 매각 현황

	공적자금 지원 원인/규모/일시	공적자금 지원 이전의 보험사업 형태	보험사업 비중	공적자금 지원 조건	보험사업 매각 현황
RBS	- ABN AMRO인수 후 High-Risk Banking 강화: 예대율 150% 이상 - 거액대출, 부동산대출 - 정부 지분 85% (455억 파운드)	- RBS Insurance (Division) 5 brands: Direct Line, Churchill, Privilege, Green Flag, NIG	2008년 그룹 영업이익의 21.5% 2008년 보험 사업 총수익 44억 파운드, ROE 18.3%	- 비용절감 - RBS Insurance 매각 - 해외사업 매각 - 총자산 25~30% 감소	- Direct Line의 지분 34% IPO - 보험사업의 수익성이 높아 매각한 것으로 보임
ING	2008년 초 보험사업 부문의 손실규모 5억 7천만 유로, 은행 2억 유로 - 유가증권/부동산 투자손실 및 평가손 100억 유로 자본투입 등 / 2008.11	지주회사 산하 은행(100%), 보험(100%)	- 총자산기준 23%(2008) - 총 세전이익 대비 52% (04~07 평균)	- 보험사업 부문의 자본부족을 충당 하기 위한 보험 사업 매각 - ING Direct 매각 - 핵심부채 해소	- ING Direct 매각 - 보험사업 매각 중
Dexia	- FSA FP, FSA Insurance의 투자손실 84억 유로 자본투입 등 / 2010년 - 프랑스 정부 44.4%, 벨기에 정부 50.02% 소유	Dexia Belgium Bank의 완전 자회사	- 총부채 대비 준비금 비중 2.6% (2008) - 총자산 대비 9% (2010) - 순이익 기준 20% (2010) - 그룹 매출액의 7.5%(2005)	- 보험사업 매각 - 소매영업지점, 채권포트폴리오 매각 - 해외 현지 은행 매각 2014년 말까지 2008년 자산의 35% 축소, - 단기자금조달 비중 축소 (30%에서 11%), 2012년 말까지 축소	- 생명보험사업 매각(Dexia Belgium Bank 매각 2011, Dexia Epargne Pension, 2008) - 방카슈랑스 유지 - FSA 매각
KBC	70억 유로/ 2008, 2009 - PIIGS exposure, CDO/ABS exposure로 인한 유동성 위기	지주회사 산하 은행(100%), 보험(100%); 은행과 보험의 완전한 통합	2008년 총수익 (Gross Income) 중 경과보험료 (Earned Premium) 비중 30.5%	- 투자은행사업 철수 - 동유럽 비핵심 사업 매각 - 국내 시장 은행-보험사업 집중 - Distribution Channel 매각	- 보험판매채널 매각 (Fidea, Centea) - WARTA(2012) 2012년에도 은행-보험사업 유지. 2012년 순이익 기준으로 보험 (생손보) 28.5%

부록 표 I-2 주요 복합금융그룹과 전세계 업권별 수익성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HSBC	ROA	1.00	0.97	0.27	0.27	0.59	0.72	0.58
	ROE	14.51	15.71	5.52	5.68	9.77	11.18	8.78
RBS	ROA	0.79	0.56	-1.61	-0.11	-0.11	-0.13	-0.41
	ROE	15.65	11.27	-40.18	-2.65	-1.94	-2.58	-7.93
ING	ROA	0.67	0.75	-0.06	-0.08	0.24	0.46	0.33
	ROE	20.05	23.48	-2.24	-3.07	6.75	12.06	7.40
Dexia	ROA	0.53	0.45	-0.52	0.18	0.14	-2.38	-0.75
	ROE	16.63	15.14	-29.51	12.37	7.02	-223.69	-193.11
KBC	ROA	1.10	1.00	-0.67	-0.75	0.59	0.02	0.38
	ROE	20.60	18.96	-14.05	-15.65	10.53	0.27	6.28
MSCI 금융	ROA	0.93	0.69	-0.31	0.15	0.33	0.20	0.26
	ROE	17.44	13.38	-7.02	2.90	5.95	3.66	4.72
MSCI 상업은행	ROA	0.82	0.71	-0.17	0.21	0.28	0.14	0.21
	ROE	17.66	14.92	-3.98	5.51	6.04	2.91	4.52
MSCI 보험	ROA	0.97	0.70	-1.47	0.42	0.54	0.51	0.54
	ROE	16.48	12.14	-30.48	8.37	8.99	8.13	7.95

자료: Bank Scope.

부록 표 I-3 2010년 이후 HSBC의 사업매각 현황

	매각 기업	업종	거래 완료 시기	거래가격	인수 기업
북미	US Cards and Retail Services	카드 소매금융	2012년 5월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US Upstate NY branches	소매금융	2012년 5월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Consumer Private Label Credit Card Portfolio	신용카드	2013년 3/4분기 완료 예정		TD Financing Services Inc.
남미	HSBC Panama	소매금융 기업금융 자금서비스업	2013년 3/4분기 완료 예정	210억 달러	Bancolombia
	Sub-Scale Operations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소매금융, 자산관리		4억 달러	Colombia's Banco GNB Sudameris
	Sub-Scale Operations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소매금융, 자산관리		8억 100만 달러	Colombia's Banco Davivienda SA
	General Insurance in Argentina	일반손해보험	2013년 4월		QBE Insurance Group
	General Insurance in Mexico	일반손해보험	2013년 4월	4억 2,000만 달러	AXAGroup
유럽	General Insurance in UK		2012년 3분기	6억 8,500만 파운드	Syndicate Holdings
	General Insurance in Ireland	일반손해보험 재보험			Catalina Holdings
	General Insurance in France				매각 계획
홍콩 & 아시아	Ping An	보험	2013년 2월	93억 8,500만 달러	CPG
	Hong Kong Insurance	general Insurance	2013년 4월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매각 기업	업종	거래 완료 시기	거래가격	인수 기업
홍콩 & 아시아	Singapore Insurance	생명보험	2013년 말 예정		AXA Life Insurance
	Taiwan Insurance	생명보험		1,800만 달러	Allianz Taiwan Life Insurance
	Vietnam Insurance	생명보험	2013년 상반기	3억 4,000만 달러	Sumitomo Life Insurance
	일본 Private Banking	Private Banking			Credit Suisse Group AG
	일본 소매금융 및 자산관리	6개 지점 폐쇄			

자료: HSBC.

부록 표 I-4 주요 복합금융그룹의 공적자금 지원 전후 비교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총자산		당기순이익		총자본비율		Tier1 비율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RBS	3,501	2,071	-50.35	-9.16	14.10	14.50	10.00	12.40
ING	1,853	1,542	-1.07	5.28	-	-	-	-
Dexia	906	471	-4.52	-3.81	11.80	20.90	10.60	19.90
KBC	494	339	-3.31	1.36	12.47	15.80	8.89	13.80

주: 총자본비율 = 총자본 / 위험가중자산

자료: Bank Scope.

부록 표 I-5 은행과 보험회사의 문화적 차이 요인

은행	보험회사
은행이 판매 (sales by the institution)	개인이 판매 (sales by individual)
고객의 요구에 대응(reactive)	선제적 고객 확보(proactive)
단기적이고 빈번한 고객 접촉	장기적이며 빈번하지 않은 고객 접촉
풍부하고 양질의 고객정보 (good information on clients)	고객정보 부재 (little information on clients)
확정적인 근무시간	유연한 근무시간
판매자에게 급여 지급	판매자에게 수수료 지급
고객의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단순한 상품 판매자의 역할
표준화된 판매방식	개인별 판매방식
긍정적인 이미지(positive image)	부정적인 이미지(doubtful image)

자료: 도이치뱅크.

부록 II.

〈바젤 III〉

- 바젤 III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완화하고자 손실흡수 목적의 자본, 자본의 질, 유동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등을 강화하였음.
-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손실흡수 역할을 하는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자본(Tier 1)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Capital)을 신설하였고, 완충자본을 도입하였음.
 - 자본비율규제가 보통주자본비율, Tier1비율, 총자기자본비율로 세분화되었음.

- 완충자본은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금융회사의 이익 배분을 제한하여 위기 상황 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보전완충자본(위험가중자산대비 2.5%)을 도입함.
 - 경기 침체기에 신용경색과 은행 손실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0~2.5%)을 도입함.
- 유동성비율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 대부분이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은 은행의 과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30일간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표($LCR = \text{고유동성자산} / \text{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geq 100\%$)임.
 - 고유동성 자산으로는 현금, 중앙은행 예치금 중 위기 시 인출가능금액,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시장성 증권 중 바젤 II 기준 위험가중치가 0%인 증권, 위험가중치 20% 이내이며 유동성이 높은 증권, AA-등급 회사채, 커버드본드 등임.

■ 특히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제항목을 도입하여 은행의 손실부담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통주자본 도입, 자본인정요건 강화, 그리고 공제항목을 확대하였음.
 - 공제항목은 영업권(Goodwill), 자사주, 관계회사 상호보유지분(Reciprocal Cross Holdings),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등 12개 항목임.

〈솔벤시 II〉

■ 솔벤시 II는 기존 솔벤시 I의 규제보다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강화된 요구자본 규제임.

-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최소절대요구자본, 지급여력요구자본(solvency required capital) 및 최소필요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로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구성됨.

- 최소절대요구자본(minimum absolute capital requirement)은 보험회사의 사업유형별로 부과되는데, 재보험·생명보험회사는 320만 유로, 손해보험회사는 220만 유로에서 320만 유로 등임.

- 최소필요자본은 보험부채의 일정비율에 따라 요구자본 축적을 규제함.

- 지급여력요구자본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생명·손해보험 언더라이팅 리스크,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자본을 축적해야 함.

-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손실로 금융시스템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수용된 것임.

- 보험부채의 일정비율만을 요구자본으로 축적하도록 한 솔벤시 I에 비해 한층 강화된 규제임.

- 보험부채시가평가 등으로 인한 요구자본 증가와 더불어, 자산운용과 관련된 시장·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요구자본을 규제함.

■ 솔벤시 II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평가에 근거해서 요구자본을 축적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상품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평가는 유럽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며, 언더라이팅 리스크의 반영은 상품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것임.

■ 시행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으나 솔벤시 II는 글로벌 보험감독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저자약력

■ 전용식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동향분석실 부실장)
(E-mail : yongsik.jeon@kiri.or.kr)

■ 윤성훈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동향분석실 실장)
(E-mail : shyun@kiri.or.kr)

CEO Report 2013-0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발행일	2013년 7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3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